

# 일본의 지역·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 도입과 시사점

Community Linked Pharmacy and Hospital Linked Pharmacy in Japan

박은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Park, Eunj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일본은 2019년부터 입·퇴원 시와 재택 의료이용 시 다른 의료 제공 시설과 연계하여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연계 약국'과 암 등의 전문적인 약학 관리를 할 때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형식적인 연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 연계와 환자 케어가 가능하도록 환자들의 치료 정보, 약물 사용 정보를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 기관이 상호 공유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카이세대의 노령화에 따른 일본의 제도 변화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1. 들어가며

일본은 2019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医薬品, 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을 개정하면서 거주 지역에서 환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약국의 역할 변경을 법제화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였다(秋田県庁, 2021).

약사가 조제 시점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환자의 약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복약 지도를 해야 하는 의무, 지역 약국 약사가 환자의 약 사용에 대한 정보를 다른 의료 제공 시설의 의사 등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였다. 또한 환자 자신이 자신에게 적합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기능별 약국 인정 제도를 도입하였다(厚生労働省, 2021).

기능별 약국은 입·퇴원 시와 재택 의료이용 시 다른 의료 제공 시설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연계 약국(地域連携薬局)’과 암 등의 전문적인 약학 관리 시 다른 의료 제공 시설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専門医療機関連携薬局)’으로 나누어진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추진 중인 기능별 약국 제도 추진 현황과 지정 기준을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 2. 기능별 약국 지정 제도

### 가. 개요

마쓰노 하루나(松野晴菜, 2019)는 기능별 약국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환자 중심 의약분업 실현과 지역사회에서의 복약 지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 의약분업이 시작된 후 최근 약국의 처방전 수취율이 70%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약국의 처방전 조제가 증가하였으나 약사의 서비스는 이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団塊世代) 세대가 전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중증 수발이 필요한 상태에서 거주 지역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등이나 타 직종과 연계하여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능별 약국 지정 제도는 환자가 자신에게 맞는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별 약국으로, 지역 연계 약국과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을 도도부현(都道府県)<sup>1)</sup> 지사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연계 약국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국은 지역 연계 약국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능별 약국의 구조 설비, 업무체계, 실적을 확인하여 1년마다 인정을 갱신하도록 하였다.

1)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都·도쿄도), 도(道·홋카이도), 부(府·오사카부와 교토부), 현(県·나머지 43개)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 나. 기능별 약국 정보 수집과 제공

기능별 약국 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환자 등이 약국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도부현은 인터넷 등을 통해 약국 기능 정보를 제공한다. 약국 개설자는 약국 기능 정보를 해당 약국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며, 도도부현 지사는 원칙적으로 보고받은 약국 기능 정보를 그대로 공표하게 된다. 약국 개설자는 약국 기능 정보에 대해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약사<sup>2)</sup>는 주민·환자 등의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도도부현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정보를 약국 개설자에게 요구하고 공표할 수 있다(厚生労働省, 2021. 1. 29.a).

약국 개설자는 1년에 1회 이상 도도부현에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약국 기능 정보를 보고한다. 지역 연계 약국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정(업데이트) 신청 이전 월 시점(과거 1년간의 실적)에 대해서는 신청 전월까지의 1년간)으로 보고하며, 그 외 사항은 12월 31일 시점으로 보고한다. 기본 정보 등은 약국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경우 도도부현에 신속하게 보고한다(厚生労働省, 2021. 1. 29.a).

도도부현 지사는 약국 개설자가 보고한 약국 기능 정보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특별구를 포함한 시정촌<sup>3)</sup>, 기타 관공서에 해당 약국의 기능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시·특별구에서 소관 약국의 기능 정보와 다른 실태 등을 확인한 경우 도도부현에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가 누락되거나 허위 보고로 인정되는 경우 도도부현 지사가 약국 개설자에게 보고 요청을 하거나 보고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다(厚生労働省, 2021. 1. 29.a).

도도부현은 약국 개설자로부터 약국 기능 정보를 보고받은 후 신속하게 공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한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주민·환자 등을 배려하여 도도부현 담당 부서 등에서 서면 열람 등의 방법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인접한 도도부현이 공표하는 약국 기능 정보를 주민·환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2) 일본에서는 약사를 약제사(薬剤師)로 칭한다.

3)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우리나라의 시·읍·면과 비슷하다.

지 링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厚生労働省, 2021. 1. 29.a).

### 3. 지역 연계 약국의 역할과 인정 기준

#### 가. 역할

지역 연계 약국은 다른 의료 제공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의약품 등의 적정 사용 및 효율적 제공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약국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약국이다. 입·퇴원 시 의료기관과 지역 연계 약국은 환자의 복약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며 간병시설 등과도 환자의 의약품 사용 정보를 연계한다.

지역 연계 약국의 서비스 대상에는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재택 의료와 퇴원서비스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 연계 약국에서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등 의료 관계자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 후 다양한 요양 장소로 이동하는 환자의 약물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면서 환자에게 질 높은 약학적 관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20. 2. 3).

#### 나. 인정 기준<sup>4)</sup>

후생노동성은 지역 연계 약국의 주요 인정 기준으로 약국의 구조와 설비, 환자의 약제 등의 사용 정보를 다른 의료 제공 기관과 공유하는 체계, 지역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조제 및 판매 체계, 집 등에서 조제 및 지도를 실시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 1) 약국의 구조와 설비

약국의 구조와 설비 측면에서 복약 지도가 가능하고 노인,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환자가 앉아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상담 창구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환자가 앉아서 약사로부터 정보와 약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지도를 받고 복약 정보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되지 않아 이용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동선 또는 이동 공간 등을 고려하여 난간

4) 厚生労働省. (2021. 1. 29.b).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の施行について(認定薬局関係). 薬生発0129第 6号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을 설치하고 노인, 장애인 등이 원활히 약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 2) 환자의 약제 등의 사용 정보를 다른 의료 제공 기관과 공유하는 체계

지역 연계 약국은 지역에서 다른 의료 제공 시설과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포괄 케어 시스템 구축 관련 회의<sup>5)</sup>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의료기관 근무 약사 및 기타 의료 관계자와 수시로 보고 및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

- ① 고위험 약물 등을 복용하는 외래환자가 지역 연계 약국을 방문한 경우 복약 상황이나 부작용의 발생 유무 등 복약 정보를 입수하고, 의료기관 근무 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한다.
- ② 입원 시 의료기관의 적절한 약학적 관리를 위해 지역 협력 약국에서 환자의 입원 전 복약 정보 등을 의료기관 근무 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한다.
- ③ 퇴원 시 퇴원 후 지역 연계 약국이 적절한 약학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연계 약국 약제사가 퇴원 콘퍼런스에 참가하여 의료기관 근무 의사, 약사 등으로부터 환자의 입원 기간 중 약물 사용, 퇴원 후 요양의 유의점 등 필요한 지시·정보를 받는다.
- ④ 재택 의료 시 지역 연계 약국 약사가 주치의의 지시 등에 따라 주택 등에 가서 재택 복약 상황 등을 파악하고 환자의 약물요법 등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용품 등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 근무 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한다.

지역 연계 약국 근무 약사가 의료기관 근무 약사 등에게 보고 및 연락한 실적이 월평균 30회 이상이어야 한다. 환자의 입원 관련 정보 공유를 한 실적, 의료기관 퇴원 관련 정보를 공유한 실적,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기관과 정보를 공유한 실적, 주택 등을 방문하여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한 실적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약국과도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약국 간 환자의 의약품 복용 유무, 남은 약 복약, 부작용의 발생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로, 예를 들어 지역

5)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구축 관련 회의에는 시정촌 또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가 주최하는 지역 케어 회의, 개호 지원 전문원이 주최하는 서비스 담당자 회의, 지역의 모든 직종이 참여하는 퇴원 콘퍼런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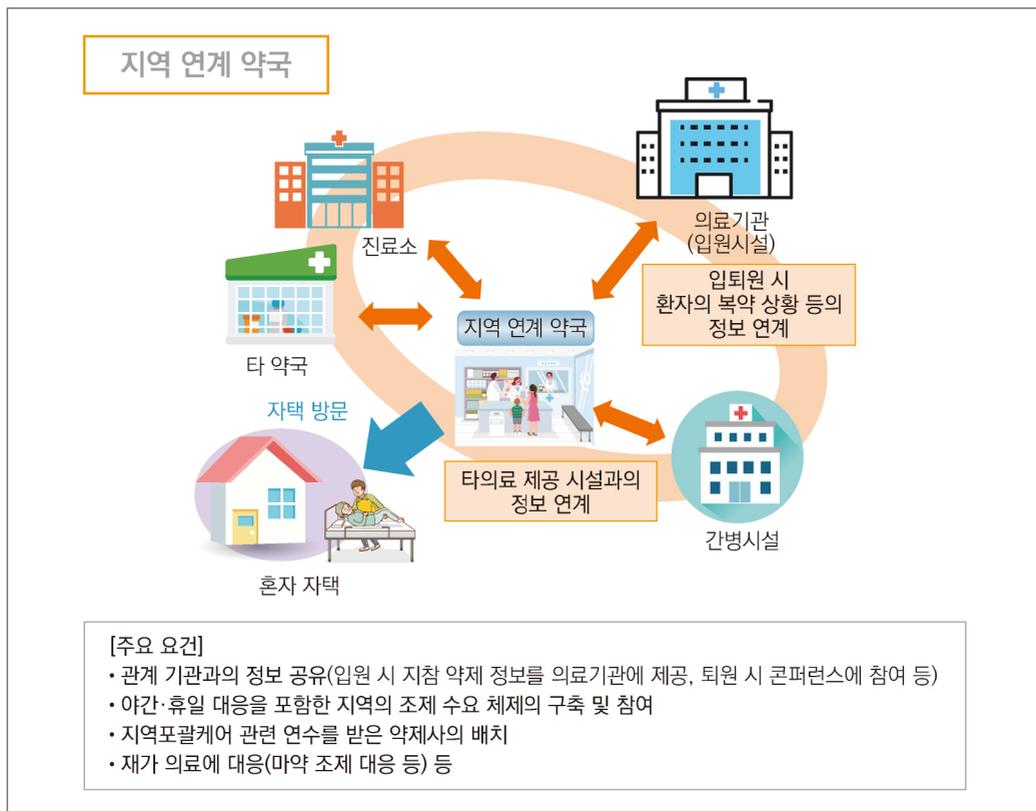
연계 약국 이용자가 다른 약국을 이용했을 때 환자의 동의하에 다른 약국에서 요구한 환자의 약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지역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조제 및 판매 체계

환자로부터 전화 상담 등이 있을 경우 개점 시간 외에도 환자의 담당 약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휴일 및 야간에 환자에게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윤번제 등을 실시한다. 필요 시 지역 연계 약국에서 지역사회 다른 약국에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과 무균 제제 의약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약품 시판 직후 조사, 의약품 리스크 관리 계획(RMP: Risk Management

그림 1. 일본의 지역 연계 약국의 기능과 요건



자료: 厚生労働省. (2020).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元年法律第63号)の概要. <https://www.mhlw.go.jp/content/11121000/000685273.pdf>에서 2021. 9. 15. 인출.

Plan)에 따른 자료 활용, 의약품 의료기기종합기구(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의 ‘의약품 의료기기 정보 전달 서비스(PMDA 메디나비)’ 등을 활용한 복약 지도 등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지역 연계 약국에는 주당 32시간 이상 약사가 1년 이상 상근으로 근무해야 하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상근으로 근무하는 약사가 있어야 한다.

#### 4) 집 등에서 조제 및 지도를 실시하는 체계

지역 연계 약국은 인정 신청 또는 인정 갱신 신청의 전월까지 지난 1년간 월평균 2회 이상 집 등에서의 조제 및 정보 제공, 약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도 실적이 있어야 한다. 방문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필요 시 의료기기와 위생용품을 제공한다.

## 4.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의 역할과 인정 기준

### 가. 역할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약학 지식을 토대로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약국으로, 암 등의 상병 구분별로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은 상병의 구분을 명시해야 하며, 암 등의 전문적인 약학 관리에 대해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厚生労働省, 2020. 2. 3).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은 암 등의 전문적인 약학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고급 약학 관리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조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다른 약국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공,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고급 약학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연수 등을 지원한다.

### 나. 인정 기준<sup>6)</sup>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의 주요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후생노동성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6) 厚生労働省. (2021. 1. 29.b).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の施行について(認定薬局関係). 薬生発0129第 6号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 1) 약국의 구조와 설비

지역 협력 약국과 동일하지만,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의 경우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보다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개인 공간뿐만 아니라 약물 지도 등을 하는 장소가 다른 공간과 충분히 떨어져 있어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배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연계 약국과 동일하게 노인,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난간, 통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 2) 환자의 약제 등의 사용 정보를 다른 의료 제공 기관과 공유하는 체계

암 치료 의료·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 후 환자 치료 방침을 공유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의 약국 개설자는 약국 근무 약사가 환자 치료 정책을 공유하는 의료기관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국 근무 약사와 암 치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기타 의료 관계자 사이에 수시로 보고 및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암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 방침(처방 등)을 이해하고 부작용 등의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의료기관의 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한다. 외래 화학 요법 치료를 받는 암 환자가 재택 의료로 전환될 때 주치의의 지시 등에 따라 주택 등을 방문하는 약국의 약사가 적절한 약학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이 암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 방침이나 약물 정보를 해당 약국에 제공한다.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은 암 치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은 절반 이상의 암 환자에 대해 정보를 보고하고 연락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암 환자는 항암제와 지지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이용해 암 치료를 받는 환자를 의미한다. 암 치료 의료 기관과 제휴하여 대상 환자를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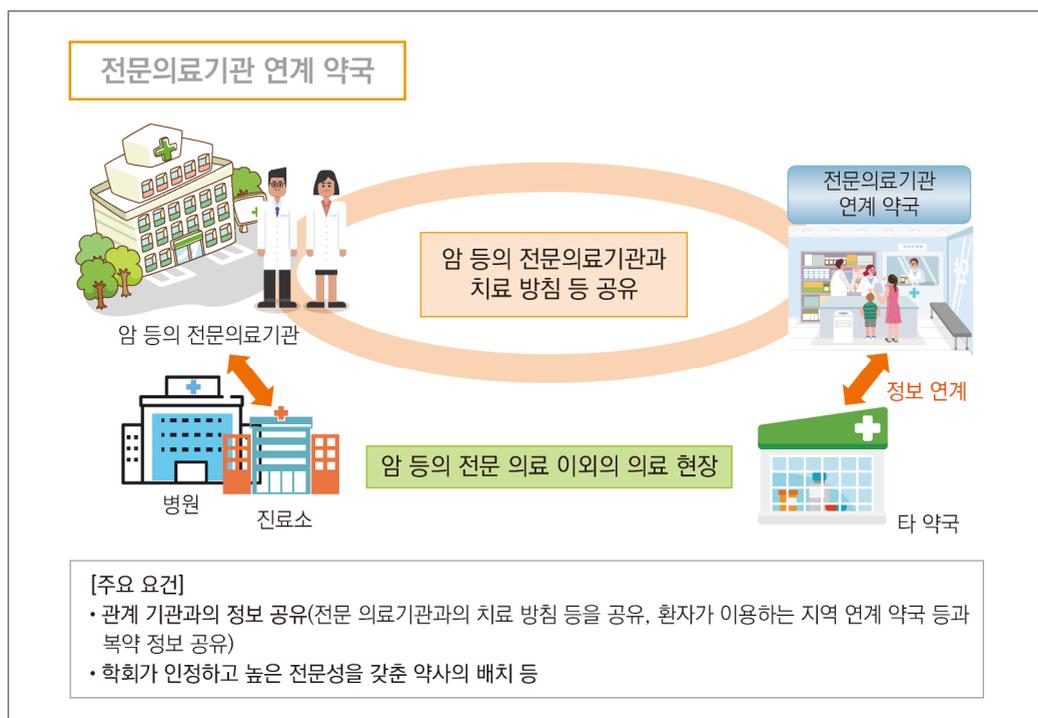
지역의 다른 약국과도 환자의 의약품 등 복용 유무, 남은 약 복용, 부작용의 발생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 이용자가 다른 약국을 이용했을 때 환자의 동의하에 다른 약국에서 요구한 환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3) 전문적인 약학 지식에 근거한 조제 및 지도 업무 체계

개점 시간 외 상담을 제공하고 휴일 및 야간에 환자에게 항암제 등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

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은 다른 약국 개설자의 요구에 따라 항암제와 지지 요법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을 공급해야 하며, 다양한 종류의 마약 조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연계 약국과 동일하게 1년 이상 상근으로 근무하는 약사와 함께 상병의 구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상근 근무 약사가 있어야 한다. 상병의 구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상근 근무 약사는 항암제 화학 요법과 지지 요법에 대한 지식 등 암 약물 요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약사로, 후생노동대신<sup>7)</sup>에게 신고한 단체가 인정하는 약사다.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은 전문성을 가진 약사 외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다른 약사들 역시 암에 관한 전문적인 약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수강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약국이 암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료기

그림 2. 일본의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의 기능과 요건



자료: 厚生労働省. (2020).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元年法律第63号)の概要. <https://www.mhlw.go.jp/content/11121000/000685273.pdf>에서 2021. 9. 15. 인출.

7) 후생노동성의 장(長)을 의미한다.

관 연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지역의 다른 약국 근무 약사에게 암에 관한 전문적인 약학 지식 기반 지도 등에 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암 치료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며 전문적인 약학 지식 기반 지도와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법 등을 포함한다.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은 지역의 다른 의료시설에 항암제와 지지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정보, 임상시험 정보, 의약품 위험관리 계획(RMP) 정보 등 암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의 의약품 정보실 역할을 한다.

## 5. 나가며

일본은 최근 약사가 지속적으로 환자의 의약품 복용 상태 파악 및 복약 지도를 하도록 법 제화하였으며, 지역 연계 약국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을 도입하였다. 지역 연계 약국과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은 약국이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환자에게 지속적인 약물 요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배경에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여러 개의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 환자가 증가하고 외래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환자 치료와 케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지역 연계 약국,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 제도로 구체화되었다. 형식적인 연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 연계와 환자 케어가 가능하도록 환자 치료 정보, 약물 사용 정보를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 기관이 상호 공유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입원 시 환자의 이전 약물 복용 정보를 지역사회 약국에서 의료기관으로 전달하고, 퇴원 시 입원 중 약물 사용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약국으로 전달하여 연속적인 환자 케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인의 경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통원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요양원 등 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 기관에서 사용한 약물 정보가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중복 투약, 불필요한 의약품 변경 등을 줄일 수 있다.

지역사회 케어에 약국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근무 약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실시와 전문 약사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 인력의 역할 변

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일본에서는 2019년 약기법 개정 시 약국 업무가 의약품 조제 중심의 '대물(對物) 업무'에서 환자의 약 사용과 복약 지도 중심의 '대인(對人) 업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 노인 인구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가 많아지고 있다.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신장 투석, 암 치료를 받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간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국의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하거나 약국과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실시된 세이프 약국 사업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약력 관리 서비스와 보건사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경기도에서 실시된 노인 요양시설 및 경로당 방문 사업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약물 사용 평가와 약물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하였다.

1, 2차 베이비부머가 차례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향후 20~30년간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는 질환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복합 만성질환으로 여러 종류의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제병용(polypharmacy) 등 약물 사용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

## 참고문헌

- 松野晴菜. (2019). 薬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概要と論点. 立法と調査, 412, 41-69.
- 厚生労働省. (2020).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元年法律第63号)の概要. <https://www.mhlw.go.jp/content/11121000/000685273.pdf>에서 2021. 9. 15. 인출.
- 厚生労働省. (2020. 2. 3). 薬局・薬剤師を取り巻く現状及び薬機法改正の施行等に向けた国の取組みについて.
- 厚生労働省. (2021). 薬局機能情報提供制度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yakuhin/kinoujouhou/index.html](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yakuhin/kinoujouhou/index.html)에서 2021. 8. 4. 인출.
- 厚生労働省. (2021). 薬局・薬剤師に関する情報.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yakuhin/yakkyoku\\_yakuzai/](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yakuhin/yakkyoku_yakuzai/)에서 2021. 9. 15. 인출.
- 厚生労働省. (2021. 1. 29.a). 薬局機能情報提供制度の改正について. 薬生発0129第 8号.
- 厚生労働省. (2021. 1. 29.b).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の施行について(認定薬局関係). 薬生発0129第 6号.